

# 유능하고 행복한 자녀로 키우기



교육인적자원부



## 유능하고 행복한 자녀로 키우기

개발진

이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장영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정미라 (경원대학교 교수)

이경마 (한국어린이육영회부설유치원장)

발행일 : 2002년 9월

인쇄일 : 2002년 9월

발행처 : 교육인적자원부

디자인 · 인쇄 : 서울멀티넷(02-2269-2288)



## 유치원이 학교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 유치원은 우리 나라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2조)
-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취학전 유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35조)
-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 과정”을 근거로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23조)
-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의 장학지도를 받는 **학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7조)

## 유능하고 행복한 자녀로 키우기



- 유아들은 이렇게 자란답니다 **4**
- 두뇌에는 적기교육이 필요해요 **6**
- 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주세요 **8**
- 무수히 많은 놀이감들! 과연 어떤 놀이감이 좋을까요? **10**
-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그림책 **12**
- 창의성은 기를 수 있어요 **14**
- 친구와 놀면서 배워요 **16**
- 마음의 문을 여는 대화를 해 보세요 **20**
- 비디오를 오래 보는 것은 괜찮을까요? **22**
- 이시기가 성교육의 적기인가요? **24**
- 언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26**
-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요 **27**



# 유아들은 이렇게 자란답니다

4

5

## 세 살 버릇 여든까지...

- 유아기 교육은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기초 공사와 같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곳에 집을 지으면 부실 공사가 되듯이, 이 시기의 바르지 못한 교육은 이후의 교육을 점점 어렵게 합니다.

## 유아기는 다른시기와 아주 달라요.

- 이 시기는 책상의 네다리 길이가 똑 같아야 반듯한 책상 구실을 하듯이
- 신체 · 정서 · 언어 · 사회 · 인지 발달이 골고루 이루어지는 전인교육이어야 반듯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 유아기에 배워야 할 과제는 꼭 기억해 주세요.

- 인간 성장발달의 각 시기에는 반드시 배워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적기에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의 발달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가족과의 깊은 신뢰감 갖기, 바른 생활습관 기르기, 친구를 사귀며 놀기 등의 과제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 서두르거나 선행학습을 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 아이에게 빨리 배우도록 너무 재촉하거나, 성급하게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는 자신에 대해 실망하거나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 초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과제를 빨리 배우라고 독촉하거나 서두르지 마세요, 나중에 배울 것을 앞당겨 배우느라 이 때에 꼭 배워야 할 것을 놓칠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면 이미 다 배워서 학습에 대한 흥미까지 떨어집니다.
- 발달에 부적합하고, 아이의 흥미나 요구가 무시된 부모의 과욕은 학습 의욕을 떨어뜨려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로 만들게 됩니다.

##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 아이들의 발달 속도는 개인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다른 아이보다 발달이 조금 늦다고 조급해 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다른 아이보다 조금 빠르다고 나중에 반드시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 숫자를 빨리 셀 수 있다고 말이나 글자를 빨리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발달이 빠르더라도 언어발달은 느릴 수 있고, 지능 발달은 빨라도 사회성이나 운동발달이 느리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아이의 발전되는 모습을 격려해 주며 지켜 볼때 아이는 행복하게 자랍니다.



# 두뇌에는 적기교육이 필요해요

## 뇌 발달에도 순서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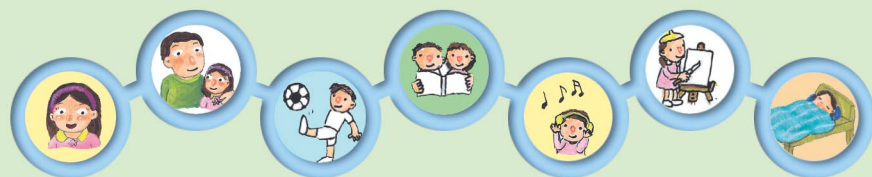
- 만3세 경까지 뇌의 기본 골격과 신경세포회로가 만들어집니다.
- 만3세 ~ 5세까지는 주로 종합적 사고 능력과 인간성, 도덕성을 담당하는 뇌 부위(전두엽)가 발달하게 되므로 이 시기에 맞는 적절한 자극으로 뇌 발달을 도와야 합니다.
- 만6 ~ 12세경에 언어담당, 수학·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뇌(측두엽, 정두엽)가 발달합니다.

## 아침밥은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해요.

- 잠에서 깬 뇌가 활동하는데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 에너지는 탄수화물에서 생기므로 아이가 아침밥을 꼭 먹도록 챙겨주세요.
- 음식은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길러 주세요. 씹을 때 뇌에 자극을 주어 뇌신경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 오감을 통한 교육이 필요해요.

- 생활 속에서 즐겁게 놀면서 직접 만지고,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보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 유아기에 지속적으로 오감을 고르게 자극하면 뇌 전체가 골고루 발달하게 됩니다.



## 잠을 꼭 자야 좋아요.

- 어릴 때는 생활 주변에서 보고, 느끼는 모든 정보가 새로운 것이어서 뇌는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잠을 꼭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잠 잘 때 뇌 세포가 쉬게 되고, 뇌는 낮 동안의 기억들을 재정비하여 기억력이 높아집니다.

## 따뜻한 부모의 스킨십은 머리를 좋게 해요.

- 피부는 신경회로로서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자주 안아 주고, 쓰다듬어 주면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두뇌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 뇌 발달에도 인성교육이 필요해요.

- 바른 자세로 인사하기, 어른에게 존댓말하기, 교통질서를 지키기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성 교육은 이 시기에 꼭 익혀주세요.
- 이런 행동을 배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 일찍, 많이 가르칠수록 유능해질까요?

-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배우는 것이 미래의 학습에 도움이 될까요?  
선행학습(영어, 문자·숫자지도, 학습지 등)으로 인해 아이의 두뇌는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아 학습 거부반응, 다른 사람과 대화를 기피하는 증상,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 너무 일찍, 너무 많이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아이 스스로 관심과 흥미를 가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세요.

## 예절은 가정 교육의 기본입니다.

- 공공 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 식사예절, 인사예절은 모든 가족이 모범을 보일 때 자연 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 아무리 어려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단호하게 제재를 해주세요.  
이시기의 습관화된 행동은 나중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 식사시간에는 입 다물고 씹기, 소리내지 않고 먹기, 음식 남기지 않기 등의 습관을 길러주세요.
-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물론 집에 오신 손님, 동네 어른들께 인사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 취침 전후, 외출 전후에 가족이 서로 인사하는 습관은 하루를 즐겁게 시작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기분이나 건강 상태도 살피볼 수 있습니다.

## 서툴지만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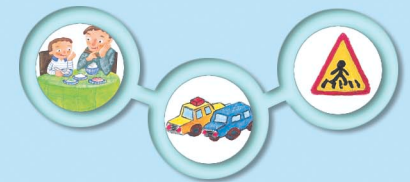
- 무슨 일이든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 세수하기, 옷 입기, 신발 신기 등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서툴더라도 대신해주지 마세요. 그러면 자녀가 배울 기회를 빼앗겨 자립심을 키울 수 없어요.

## 생각이나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 도움을 받았을 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라고 인사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 엄마, 아빠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자녀에게도 ‘고마워’, ‘미안해’ 등의 표현을 늘 생활화 할 때 자녀들은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 정리 정돈이나 질서의 즐거움을 느껴보게 해주세요.

- 놀고 난 후 장난감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정리함을 만들어 주시고, 정리할 때 아이와 함께 해보세요.
- 정리함에 그림이나 사진을 붙여서 쉽게 장난감을 구별하여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분류의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 교통질서 지키기, 줄 서기, 길가의 휴지 주워 휴지통에 넣기 등 부모가 먼저 실천해 보세요. 아이들은 본 대로 따라 하며 배우게 됩니다.



## 아끼는 습관을 갖게 해주세요.

- 물 아껴 쓰기, 불필요한 전기 끄기, 물건을 끝까지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사주기보다, 꼭 필요한 물건만 계획해서 구입하는 습관 기르기, 용돈 저축하기 등의 습관을 길러주세요.

##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 식탁 치리기, 신발 정리하기, 신문 가져오기, 화분에 물 주기 같은 일들을 아이에게 맡겨 보세요.
- 가족을 돕는 일은 자녀가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 무수히 많은 놀이감들! 과연 어떤 놀이감이 좋을까요?

## 놀이는 공부예요.

-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배우므로 재미있어서 자꾸 또 하고 싶어합니다.
- 놀이에 열중하다보면 집중력도 생기고 무엇이든지 스스로 해보려는 성향도 가지게 됩니다.
- 자녀가 친구와 함께 놀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고, 엄마, 아빠도 늘 함께 놀아 주세요. 어린 시절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뿐 아니라 가족애가 넘칩니다.
- 놀이감은 자연스럽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놀이를 유지, 확장, 발전시키는 도움을 줍니다.

## 연령에 맞는 놀이감을 주세요.

- 유아의 수준보다 너무 쉬운 놀이감은 금방 싫증을 냅니다.
- 너무 어려우면 어른의 도움을 받아야하므로 재미없고, 성취감도 느낄 수 없습니다.

## 다양하게 놀 수 있는 놀이감은 창의성을 길러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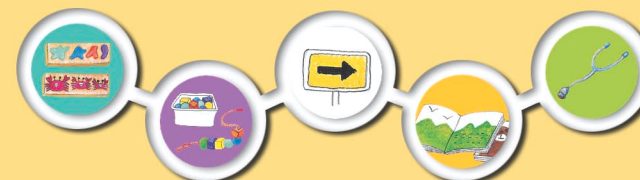
- 마음대로 변형해 볼 수 있는 놀이감, 상상하면서 놀 수 있는 놀이감, 주변을 관찰 할 수 있는 놀이감들이 창의성을 길러 줍니다.
- 블록 종류는 다양하게 구성하고 부수고 재구성할 수 있고, 여럿이 함께 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싫증 내지 않고 꾸준히 가지고 놀 수 있는 창의성을 길러주는 놀이감입니다.
- 돌, 물, 모래와 같은 자연물, 인형 등 극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감, 미술 자료, 현미경, 확대경, 좋은 그림책 등도 창의성 발달을 돕는 좋은 놀이감입니다.

## 안전하고 튼튼한 놀이감을 주세요.

- 뽕죽하거나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 질감의 놀이감은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 모서리가 둥근 놀이감, 표면이 매끄러운 나무 재료, 먼지가 나지 않는 형겅 재질, 무독성 착색 도료의 놀이감이 안전합니다.
- 망가지기 쉬운 부분이 있는지, 부속물은 아이가 삼킬 위험이 있는지, 남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놀이감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 흥미와 개성에 맞는 놀이감을 주세요.

- 성 역할의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게 남자·여자 놀이를 구분하지 않고 놀게 해주세요.
- 엄마·아빠의 취향보다는 자녀의 흥미와 개성에 맞는 놀이감을 골라 주세요.
- 폐품이나 가정용품으로도 놀이감을 만들어 보세요.
- 자녀가 관심 없어 하는 놀이감은 보관해 두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꾸어 주세요. 너무 많은 놀이감은 오히려 놀이에 방해가 됩니다.



#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그림책

## 엄마, 아빠! 그림책을 읽어주세요.

- 유아기의 그림책은 혼자 읽는 책이 아니라 엄마, 아빠와 함께 보는 책입니다.
- 유아기에는 글자를 읽을 줄 알아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그림책 이야기 듣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 아이가 글을 읽을 줄 안다고 동화책을 읽도록 강요하지 마십시오.
- 어린시절 부모가 매일 책 읽어 주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언어교육(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입니다.

## 그림책에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영양소가 있어요.

- 그림책은 유아가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그림책을 보면서 유아의 창의력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 그림책을 보면서 유아의 정서가 풍부해집니다.
- 그림책을 보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 이런 그림책을 읽어주세요.

- 자녀가 관심을 갖고, 흥미 있어 하는 주제가 담겨있는 책을 읽어줍니다.
- 이해하기 쉬운 내용과 어휘로 된 책을 읽어줍니다.
- 반복되는 문장이 많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책을 읽어줍니다.



## 나란히 앉아서 함께 보세요.

- 책을 읽어줄 때에는 자녀와 나란히 앉아서 함께 그림책을 봅니다.
- 자녀가 그림책을 가지고 책장 넘기기를 원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 그림책을 읽다말고 자주 물어보면 싫어요.

- 책에 있는 글자와 숫자를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묻지 마십시오.
- 이야기를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읽어주세요.
-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이런 그림책은 이야기를 나누며 읽어주세요.

- 엄마와 함께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
- 즉 병원에 관한 책, 생활습관 형성에 관한 책 등은 경험을 이야기해가며 읽어주세요.

## 매일 읽어주세요.

- 자녀에게 매일 책을 읽어 주는 습관은 자녀가 장차 책읽기를 좋아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자녀는 녹음테이프나 CD를 통한 기계 속의 이야기보다 엄마, 아빠의 사랑스런 음성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정감을 갖게됩니다.



# 창의성은 기를 수 있어요

14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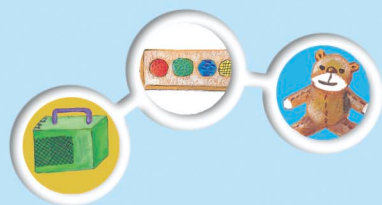
## 창의성은 누구나 있어요.

- 창의성은 어릴 적 가정과 주변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 창의성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이나 행위를 새로운 각도로 관찰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려는 자세이며, 사고 방식입니다.
- 창의성은 과학자나 예술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지요.



## 보고, 듣고, 냄새맡고...

- 창의성을 기르려면 어릴 때 직접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만져볼 수 있는 감각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풍부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 인정해주세요.

-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자녀가 남과 다른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인정해 주세요.
- 훌륭한 재능을 발달시키려면 어른의 한마디 격려나 도움이 큰 역할을 하게 되지요
- 편안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이어야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마음놓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알고 싶어요.

- 창의성은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 자녀의 질문 상황에 따라 아이에게 질문( '너는 어떻게 생각해 !' ) 해 보거나 성실히 대답해 주세요. 적당히 얼버무려서 넘어가는 일이 잦으면 아이는 궁금한 것이 점점 적어지게 되면서 창의적인 호기심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됩니다.

## 음... 생각, 생각...

-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지 생각해 보도록 기다려 주세요.
-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릴 때는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도록 격려해 주세요

## 엄마, 아빠도 함께.

- 부모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면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 부모 자신이 모델이 되세요. 창의적인 부모 밑에서 창의적인 아이가 자라거든요.



# 친구와 놀면서 배워요

16

17

##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 아이들은 친구관계를 통해 사회생활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친구들 사이에서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분하고, 친구들에게 환영받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사회적 능력이 형성됩니다.
- 아이들은 친구와 놀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안하거나 주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친구의 제안과 의견에 따르거나 협상하기도 하면서 리더십이나 친사회적 행동과 같은 사회 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배웁니다.

## 친구와 놀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도 생기지요.

- 아이들은 친구들과 잘 놀다가도 금방 싸우기도 하고 기분이 잘 바뀝니다.
- 이때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서로 화해하고 의견을 조정해보는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신감을 갖게되지요.
- 친구를 잘 사귀고, 인기가 있을 때 학교생활도 즐겁고, 이후에 사회생활도 잘 적응할 수 있지요.
- 반면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하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소속감도 가질 수가 없으며, 학업에 대한 흥미도 잃게 됩니다.



## 어떤 친구와 놀아야 할까요?

- 유아기에는 집이 가깝거나 자주 만날 수 있을 때 친구가 됩니다.
-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세요.
- 친구들과 놀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나이가 다른 아이들과도 놀게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친구를 도와주거나 양보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입장을 느껴보도록 도와주세요.

- “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친구 기분은 어떨까?”,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등의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 아이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친구들과 놀면서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고려해주는 행동을 배웁니다.

## 집단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려면?

- 어떤 행동이 친구를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지 알도록 아이와 얘기해 보세요.
- 친구를 보면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잘 노는 아이가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인정하거나 칭찬할 수 있고, 관심을 보이는 것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이 친구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 마음의 문을 여는 대화를 해 보세요

18

19

## 마주 보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좋아요.

- 아이와 눈 높이를 맞추고 마주보며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아이의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 아이를 안아주거나 어깨를 쓰다듬어 주는 신체적 표현은 아이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 아이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줍니다. “응, 그랬구나.” “그래서?” 등의 반응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 부모가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듣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이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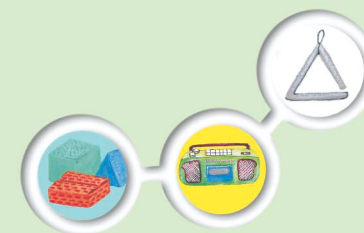


## 비난이나 꾸중을 들으면 말이 잘 안나와요.

- “왜 그랬니?”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짓이야.” 등의 비판이나 비난은 이야기의 통로를 막게 됩니다.
- 잘못된 일이라도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은 잘 들어줍니다.
- 잘못했을 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는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엄마! 다음부터는 정말 잘할게요.

- 아이가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에는 꼭 안아주거나 위로해주세요. 상처 받았거나 화가 났던 기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정적인 상황이나 기분을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 부모의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줍니다. “네가 그렇게 책을 찢어서 엄마는 정말 아깝고 화가 나는구나.” 등으로 부모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넌 어쩌면 그렇게 착하니?’ 이런 칭찬은 부담스러워요.

- 직선적인 칭찬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 “착하다”, “정직하다” 등의 칭찬보다는 “네가 엄마를 도와 정리를 해주어서 고맙다” 등으로 유아의 노력과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격려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비디오를 오래 보는 것은 괜찮을까요?



## 장시간의 비디오 시청은?

- 시각자극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다양한 활동을 끌고루 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 비디오를 오래 보면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부족하게 됩니다.
- 유아기는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끌고루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 아이가 잘 집중한다고 비디오를 계속 보여주어야 할까요?

- 비디오나 텔레비전은 사람과 사람간의 상호작용을 돕는 매체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보여 주고 들려주는 매체입니다.
- 비디오를 틀어주면 조용하다고 자꾸 보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비디오를 많이 보면 스스로 탐색하고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 비디오 증후군에 대하여 알고 계신가요?

- 외국어나 학습용 비디오를 장시간 반복적으로 시청한 유아에게서 '유사자폐증'과 같은 비디오 증후군의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비디오 증후군은 비디오를 보지 못하게 하였을 때 매우 불안한 반응을 보이며 대인관계를 기피하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 이런 증상을 보이면 비디오 시청을 중단하고 실외놀이 등으로 적극 유도해 보세요. 아이에 따라 회복되는 시간이 상당기간 필요하기도 합니다.
- 심한 증상일 때에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십시오.

## 비디오를 열심히 보는 것은 그만큼 흥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 한 가지 활동에만 집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흥미와 매우 다릅니다.
- 비디오를 오래 보는 것은 내용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보다는 반복적으로 습관화되어 비디오를 보지 못할 때 초조해지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 어떻게 보여줄까요?

- 비디오 시청은 일정 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에만 보도록 지도합니다.
- 가족과 함께 보면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이시기가 성교육의 적기인가요?



## 성 문제도 친구와 대화하듯이 풀어가야지요

- 아이가 성에 관한 질문을 하면 “넌 어떻게 생각해?”라고 아이의 생각을 먼저 들어 보고, 이야기해 봅니다.
- 얼버무리거나, 당황해하면 아이는 ‘은밀한 성’, ‘장난스런 성’, ‘애매 모호한 성’의 느낌을 받게 됩니다.

## 아이의 질문에 정확한 명칭을 알려 주세요

- “엄마 이게 뭐야?” 하면 ‘찌찌’ ‘잠지’ 등 유아적 표현보다 의학적 용어 (음경, 음순, 고환, 질, 젖 등)를 사용하는 부모의 태도는 이후에 아이가 성에 대한 생각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몰라도 돼!” 하고 회피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담담하게 “정말 좋은 걸 물어 보는구나” 하고 먼저 격려 해 주면 궁금한 것은 항상 부모나 교사에게 묻게 됩니다.

## 임기응변식 대답은 안돼요.

- “엄마 나 어디로 나왔어?”, “아기는 어디로 나와?”하고 물으면 “너는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해?” 하고 아이의 생각을 먼저 들어 보세요
- 만약 보여달라면 “그 곳은 소중한서 몸 속에 감춰져 있고 ‘문’만 보이는데 함부로 볼 수 없으니 그림으로 보여줄게” 하며 그림, 관련 비디오 등을 활용해 보세요

## 엄마 나는 왜 고추가 없어?

- 여자아이는 성기의 차이를 관찰하고 성에 대한 불평등 의식을 갖게되는 시기입니다.
- 그림을 그려서 “여자는 고추보다 더 소중한 아기가 자라는 아기집도 갖고 있어”라며, 남녀의 차이를 당당하고, 기쁘게 생각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 주세요.

## 아이가 자위행위 할 때

- 유아의 자위행위는 성인의 수준에서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 자위행위는 남자, 여자아이 모두 할 수 있으며, 성기 만지는 것은 재미도 있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일종의 놀이기도 합니다.
- 성기 만질 때 “얼른 손 빼지 못해”하고 무서운 얼굴을 보이면 나쁜 짓이라는 암시로 성에 대한 죄의식을 갖게되며, 잠시 억제하는 척 하다 다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 이럴 때는 억압하지 말고, 활동적인 다양한 놀이로 아이의 관심을 다른것으로 돌려 주세요.





# 언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24

25

##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때입니다.

누구나 말하고 듣지만 의사소통을 잘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 의사소통 능력은 사회 생활을 잘 하는데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잘 표현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사소통은 유아가 관심 갖는 내용을 부모와 함께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여 대화하기를 좋아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자녀가 경험한 것에 대해 적절히 질문하여 순서에 맞게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 자녀가 관심을 갖는 사물이나 상황을 화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 잘 들을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 주세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가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말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알려 줍니다.
-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천천히 분명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 재미있게, 너무 길지 않게 이야기해 줍니다.
- 부모가 먼저 인내심을 갖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모범을 보입니다.



## 내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고 싶어요.

자기의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는 것은 언어 발달 뿐 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 목소리의 크기를 적당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정확한 발음으로 또박또박 말을 하도록 지도해주세요.
- 아이의 말을 바른 문장으로 반복해 주세요. 아이가 “엄마, 저거.” 라고 하면 “엄마, 자동차 주세요 했구나.” 와 같이 완전한 문장으로 말해주세요.
- 아이들은 인형을 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인형을 준비해 주면 아이는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인형과 대화하게 됩니다.
- 아이들과 외출해서 본 것, 경험한 일들을 가족들에게 말해볼 수 있게 해주세요. 유아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더 쉽게,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요하지 마세요.
- 주어, 동사 외에 형용사, 부사 등도 넣어서 문장을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 정확한 어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어휘를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글읽기의 시작은 학습지를 풀기보다는 일상 생활 속에서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 일상 생활 속에서 유아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통해 자연스럽게 글자를 보고 읽는 경험을 하도록 합니다.
- 나와 가족, 친구의 이름 등은 이 시기 아이들이 읽고 싶어하는 대상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필요를 느낄 때 읽어보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과자봉지나 간판 등 주변 사물에 적힌 글자를 같이 읽어보거나 글자에 대한 유아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주세요.
- 유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읽어주어 읽기에 대한 동기 유발을 도와줍니다.

## 이렇게 해주시면 쓰기가 재미있어요.

쓰기를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환경이 준비되면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 글을 쓰려면 먼저 손가락 등 소근육이 발달해야 합니다. 그림 그리기, 점토 놀이, 블록 갖고 놀기를 통해 소근육 발달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자신의 이름, 좋아하는 물건 등 자녀가 원하는 글자를 써보도록 격려해줍니다.
- 잡지나 카탈로그 등에서 아는 글자를 찾아 읽어보게 합니다.
- 일상 생활용품에 명칭카드를 써서 붙여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아이 스스로의 생각을 쓸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 아이가 틀린 글자를 쓰더라도 면박을 주기보다 격려해 줍니다.
- 아이가 글자를 쓰고 싶을 때 필요한 필기 도구를 아이 주변에 놓아줍니다.



##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요

### 예방 접종표 (3~6세)

연 령	백신종류
12~36 개월	일본 뇌염
4~6세	DTaP, 폴리오, MMR
6세	일본 뇌염

※자료: 대한소아과학회(2002), 대한 소아과학회 예방접종표.

### 한국 소아 발육 표준치 (2~6세)

남				연 령 군	여			
체중(kg)	신장(cm)	두위(cm)	흉위(cm)		체중(kg)	신장(cm)	두위(cm)	흉위(cm)
12.94	87.7	48.4	50.0	2 (2~2.5)년	12.51	87.0	47.7	49.1
14.08	92.2	49.4	51.2	2.5 (2.5~3)년	13.35	90.9	48.4	49.9
15.08	95.7	49.6	51.9	3 (3~3.5)년	14.16	94.2	48.7	50.5
15.94	99.8	50.0	52.3	3.5 (3.5~4)년	15.37	98.7	49.1	51.4
16.99	103.5	50.4	53.3	4 (4~4.5)년	16.43	102.1	49.6	52.3
17.98	106.6	50.87	54.2	4.5 (4.5~5)년	17.31	105.4	49.9	52.8
18.98	109.6	50.8	55.0	5 (5~5.5)년	18.43	108.6	50.0	53.7
20.15	112.9	51.0	55.9	5.5 (5.5~6)년	19.74	112.1	50.3	54.8
21.41	115.8	51.3	57.0	6 (6~6.5)년	20.68	114.7	50.5	56.5

※자료: 대한소아과학회(1998), 한국 소아 발육 표준치.